

## 학교가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 방학중 강의실 새단장 완료 ... 주변환경 개선, 첨단장비 확충

방학 중 교육환경개선공사가 실시되었다. 이번 공사에는 총 예산 25억 원이 투입되어 각 대학 건물의 강의실 구조와 주변 환경이 새롭게 꾸며졌고 첨단장비를 확충하게 됐다.

학립관과 동국관에는 계단식 고급강의실을 마련했다. 이리하여 우리학교는 각 건물별 고급강의실을 1곳씩은 확보한 셈이다. 특히 학립관 J201호 첨단강의실은 첨단에어컨과 세미나형 책상 등을 갖춰 놓았다. 명진관은 A204호 강의실을 비롯해 8곳 강의실이 세로구조에서 가로구조로 바뀌었고 A104호와 동국관 M404호 강의실은 2개실로 분리해 학습효과를 높이기도 조성했다.

또한 각 건물 강의실마다 책·결상을 교체하고 전공 강의실에는 화이트보드와 전자칠판을 갖춰 놓아 학생들은 이전보다 나아진 여건에서 수업을 받게 됐다. 이

밖에도 명진관 2층 통·번역실과 학립관 3, 4층 휴게공간 마련, 원흥관 공대 독서실 천정재 교체, 체육관에는 체력 단련실·탈의실·샤워실을 마련해 쾌적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강의실 주변 환경도 개선됐다. 홀, 복도, 계시관 등이 정리되었고 각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출입문이 유리문으로 교체됐으며 출입문 옆에 알람판 기능도 생겼다.

또한 인터넷망, 컴퓨터, 영상 및 음향 시설 등 첨단장비가 확충되었다. △PC 98대 설치 △각 대학 행정지원실 노트북 32대 보강 △빔 프로젝터 31대 설치 등이 이뤄졌으며 무선 인터넷이 9월중으로 사용 가능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학교는 교육환경개선 마스터플랜을 세워 추진할 예정으로 실험 실습실 장비 및 환경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첨단장비 및 기자재를 충분히 지

원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동국관, 중앙도서관, 학술문화관, 정보문화관 등의 학교 건물 증축공사와 신공학과, 기숙사의 건립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일(사회환경시스템공학) 교무처장은 "그동안 교육 개선에 힘을 쓰지 못해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다"며 "건학 100주년을 맞아 시설과 장비, 실습실 등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책·결상과 내벽을 교체한 동국관 M301호

첨단강의실 학립관 J201호



"반값다 학교야" ... 지난 1일 개강을 맞아 등교한 학생들로 가득 찬 혜화관 옆 로즈버드의 모습. 많은 학생들이 활기찬 모습으로 오랜만에 만난 친구, 선·후배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vik126@dongguk.edu

### 2005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200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달 25일 본관 중앙당에서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63명, 석사 446명, 학사 589명 등 총 1,156명이 학위를 받았다. 성적우수상에는 조아라(국문) 양, 김소영(법) 양, 김용걸(지리교육) 양이 수상했으며 공로상은 김동호(정보

관리) 군, 최중택(교육) 군이 받았다. 또한 예사오원(葉小文) 중국 국가종교국장이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아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제1회 세계불교포럼을 주최하는 등 세계불교의 국가 간 문화교류의 계기를 만드는 데 크게 공헌해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에 예사오원 국장은 "100년의 역사가 있는 학교에서 영광스런 학위를 받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 정년교수 퇴임, 신규교수 임용

지난달 31일자로 서울캠퍼스에서 총 9명의 교수가 퇴임했다. 퇴임식은 지난 달 24일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이뤄졌다. 한편 김순영(영어영문학) 조교수 등 총 24명이 신규 임용됐다.

또한 △조영모(국제통상학) 부교수

### 정관 개정 및 규정 제·개정

입학처가 새로 신설됐다. 이는 기존 교무처에 입학상담실과 학생선발실이 속해 있던 것을 업무를 분리해 입학처에 입학관리실이 속한 1처1실이 됐다. 입학처장은 유국현(화학) 교수가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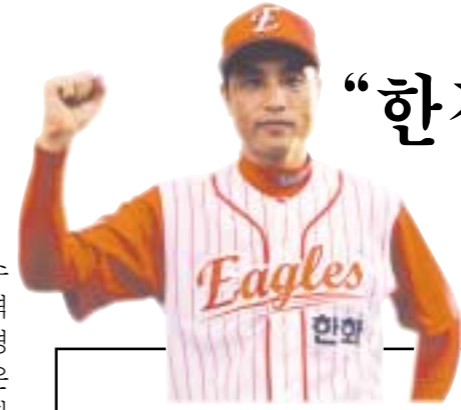
기획처 인사관리팀이 교무처 교원인사팀으로 소속과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교원인사업무가 교무처로 이관됐다. 연구처 연구개발팀은 연구진흥팀으로 변경됐다.

인문정보대학원과 산업대학원은 언론정보산업대학원으로 통합됐다. 학사과정에서는 불교학부에 사회복지학전공이 신설됐고, 기존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부의 멀티미디어공학전공은 영상미디어 학부로 개편돼 영화영상전공과 게임멀티미디어공학전공이 편성됐다. 또한 연극영상학부는 연극전공과 뮤지컬전공으로 이뤄진 공연예술학부로 바뀌었다. 경영학부 정원은 425명에서 355명으로 축소됐다.

일반대학원 연극영화학과는 연극학과로 편성됐고 전문대학원에 영화이론전공이 신설됐다.

△구분혁(경영학) 부교수 △유철호(경영학) 부교수 △최석원(경영학) 부교수 △이정영(회계학) 조교수가 지난 1일부로 특별초빙됐고, △하검평(중어중문학) 부교수 △손민강(중어중문학) 부교수 △애니 국제교육원 전임강사 △로렌 국제교육원 전임강사가 외국인교원으로 신규임용됐다. ▶관련특집 6면, 7면

### 프로야구 200승 달성한 송진우 동문을 만나



## "한결같은 꾸준함이 200승 비결"

"바깥 텐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요."

한화 이글스의 '송골매' 송진우(무역 89쪽) 동문을 만나기 위해 청주구장으로 달려간 기자에게 건네는 첫마디에서 스타를 만난다는 긴장감이 서서히 누그러진다.

지난 1일 두산과의 경기 시작을 앞두고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통산 200승을 달성한 송진우 동문을 만날 수 있었다.

지난달 29일 송진우 동문은 프로야구 역사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은퇴시기를 넘긴 불혹의 나이, 이미 동기가 떠난 마운드에서 그는 매 경기마다 공 한 개, 한 개에 혼신의 힘을 모아 던졌다.

1989년 프로야구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18년 동안 그가 그렇게 던진 공이 4만 5천여 개라고 하니 송진우의 200승은 그의 혼이 담겨있는 기록이다.

다섯 번째 도전 끝에 어렵게 얻은 200승인만큼 그동안 마음고생도 심했다고. "199승 이후 쉽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 부담이 컸다. 하지만 꾸준히 쌓아온 기록을 달성하고 나니 흥분하다"라며 소감을 밝힌다.

백호기 최우수선수상, 서울 올림픽 국가대표 등 정상급 투수로 활약하던 재학시절을 떠올리며 송 동문은 학교축제 때 동료들과 막걸리를 나눠먹었던 일이나 분수대 앞에 모여 학내 집회에 참여했던 일 등 젊은 날의 추억들을 풀어 놓는다.

"무엇보다 야구부 경기가 있을 때 마다 빼놓지 않고 운동장을 찾아준 학생들을 잊을 수 없다. 동대생들로 꽉 들어찬 응원석과 함께 부르는 응원가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시합에 전념하게 해주었다"고 말한다.

인터뷰하는 동안 그를 알아보고 여기저기서 팬들이 모여 들었다. 계속해서 사인을 부탁하는 팬들의 요구에도 성실하게 웃으며 응하는 송

진우 동문에게서 마음 좋은 선배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위치에서든 후배들이 동국인이라는 자부심을 잊지 말고 꾸준함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생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는 송진우 동문.

비록 지금은 학교를 떠나 있지만 늘 학교에 대한 고마움은 잊지 않는다고 한다.

은퇴 후 모교 야구부 감독으로 부임할 생각을 품는 질문에 환한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마운드를 지키고 있는 '송골매' 송진우 동문. 그는 이번 200승 달성과 함께 최고령 슬러투수, 역대 최다 이닝 투구 등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앞으로 3,000이닝 투구 기록과 팀의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그는 또 한 번의 힘찬 비상을 준비 중이다.

편집부 dgupress@dongguk.edu



## 교양영역 신규강좌 개설

### 스포츠·여성학·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 마련

이번 학기 들어 교육과정 개선으로 교양영역 강좌들이 새로 신설됐다.

우선 일반교양 체육부분에 수영(남·여), 헬스, 골프, 뽀리댄스, 요가, 댄스스포츠, 썸머댄스, 승마, 배드민턴, 탁구, 농구, 호신술, 택견, 태권도 등 총 15개 스포츠 관련 강좌가 신설되었다. 다른 대학에 비해 체육실기 강좌가 미비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시간 활용방법을 소개하기 위한 취지이다. 각 1학점으로 총 441명이 수강 신청했다.

자기개발 영역에 신설된 '창업이론과 실무'는 자유선택 3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 폭 넓은 간접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업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한다. 강의목표는 성공한 창업가를 초빙하여 실제 경험담을 들으며 진로의 다양성을 증대하는 것이다. 이 강좌는 중소 기업청에서 강좌를 운영하며 경비를 지원한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3·4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여성의 진로탐색과 커리어 개발' 진로교육 교과과정이 신설됐다. 강좌는 3·4학년 64명을 정원으로 진행

되며 2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이번 개설은 우리학교가 올해 교육부가 지정한 '여대생 특화 진로교육과정 개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여대생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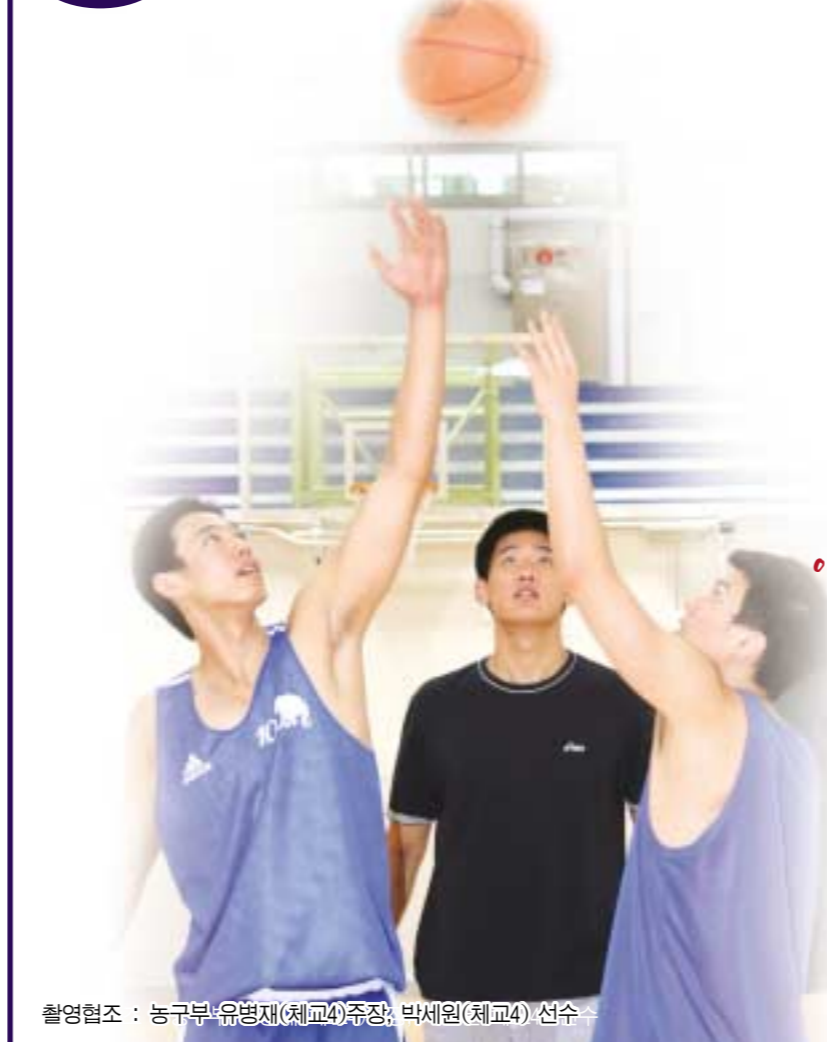
'여성리더와의 대화' 강좌는 여성리더와 리더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사회 각 분야의 여성 지도자를 매주 초빙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이들은 현장에서 체험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역할모델이 되도록 한다. 여학생 100명을 정원으로 자유선택 1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지난 학기에 신설된 21세기 리더십 강좌는 이번학기에도 문화예술, 경제사회, 과학기술 3개 분야에서 관련 분야의 명사를 매주 초빙하여 연속적으로 진행된다.

한편 2007학년도부터 외국인을 위한 교양과목으로 4단계로 이뤄진 수준별 한국어 강좌와 '한국의 이해' 강좌가 신설될 예정이다. <손>

sonhee1347@dongguk.edu

동대신문 기획광고



촬영협조 : 농구부·유병재(체교4)주장, 박세원(체교4) 선수

발전기금 060-700-0119

## Ready~ Action!

ready : a. 1. 준비가 된, 체비를 갖춘 2. 각오가 되어 있는, 언제든지[기꺼이] ...하려는(willing) 3. 막 ...하려고 하는, 금방이라도 ...할 것 같은(about)

action : n. 1. 행동, 활동, 실행 2. (구체적인) 행동, 행위(deed)(=> act [유의어]); (평소의) 행위, 행실, 거동 3. (힘·약품 등의) 작용; 효과, 영향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학기를 위해 발돋움할 때입니다. 농구의 시작을 알리는 점프볼처럼 날아올라 시작합니다.

### 농구부 경기 일정

10월 17일~10월 23일 제87회 전국체육대회  
10월 29일~11월 7일 제43회 전국대학농구연맹전 2차대회  
11월 20일~11월 29일 2006 농구대잔치

농구부의 멋진 활약을 위한 동국인의 관심과 응원을 기대합니다.

동대신문사

# 전문대학원 출범 준비중

## 정부 결정 남아 있어 ... 많은 노력 기울여야

최근 우리학교는 전문대학원 설립 준비에 한창이다. 준비중인 전문대학원으로 의화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 총 3분야가 있다.

의화전문대학원은 올해 1월 전환승인을 확정해 2009년부터 전문대학원 30명, 의과대학 19명을 신입생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그러나 설립위치가 문제다. 우리학교는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일산불교병원에 의화전문대학원을 설립하려 한다. 하지만 정부규정은 의과대학이 있는 곳에 의화전문대학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학교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위치변경 인가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며 앞으로의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기획예산팀 유광호 계장은 "일산 캠퍼스에 각종 의학 관련학과와 산학연구기관 등 병원중심의 의학 분야의 지적 연구기관을 조성할 계획

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대학원(특수)을 폐지하고 경영전문대학원(MBA과정)으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경영전문대학원의 설립이 확정되면 동국관 1동, 학술문화관, 중앙도서관, 정보문화관 등을 새로 증축할 경우 일부분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에 우수한 교수 조빙과 다양한 교육과정을 준비해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영면(경영학) 교수는 "현재 대학들의 추세가 MBA로 바꾸어가고 있으며 이미 서울대를 비롯한 10여개의 대학이 MBA과정을 출범시켰다"며 "우리학교도 일류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학교는 지난 달 11일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6월 있었던 임시국회에서 로스쿨 법안 통과가 무산돼 정부가 계획한 2008년

로스쿨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타 대학에 비해 준비가 늦었던 만큼 준비할 여유가 생겨 로스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로스쿨 설립추진단은 지난 7월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로스쿨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설립추진단 TFT팀 장인 박병식(법학) 교수는 "학교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교수진도 로스쿨 설립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문대학원이 출범되면 해마다 상당 수의 우수한 인재가 배출된다. 이로 인해 학교 측에서는 설립 추진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앞으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vik126@dongguk.edu



이제 우리 일촌 ... 우리학교와 경기도 고양시 원신 3동 청대마을과의 1사(社)1촌(村) 자매결연 협약식이 지난 31일에 있었다. 1사 1촌은 동농간의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만드는 행사로 학교단체로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우리학교가 처음이다.

우리학교와 경기도 고양시 원신 3동 청대마을과의 1사(社)1촌(村) 자매결연 협약식이 지난 31일에 있었다. 1사 1촌은 동농간의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만드는 행사로 학교단체로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우리학교가 처음이다.

# 교직원 임금 정률 9.5% 인상

## 각 입장차 좁혀 임금협상 타결

2006학년도 직원 임금협상이 정률 9.5% 인상으로 타결 돼 지난달 28일 최종 조인식이 치러졌다. 세 금 12%가 공제된 인상급여 6개월 소급분은 지난달 29일 계좌입금 처리돼, 2006학년도 임금협상은 마무리를 지었다.

예년의 경우 5월 초까지 임금에 관한 단체 협약을 마무리 짓고 5월 급여부터 인상안을 반영해 왔지만, 금 12%가 공제된 인상급여 6개월 소급분은 지난 7월 29일 경북 군위군에 있는 인각사에서 열렸다.

김 교수는 "삼삼국유사 연구에 대한 논문 20여 편 학술지 게재 △부각각사비 음기 복원 △고인본 재료 발굴 등의 업적을 높이 평가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 농협중앙회 1억 5백만원 전달

농협중앙회는 지난 7월 20일 학교를 방문해 우리학교 건학 100주년을 기념하여 발전기금 1억 5백만원을 전달하였다.

홍기삼 총장은 이 자리에서 "학교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전자랜드 1억 기부

전자랜드(회장=홍봉철)는 지난 8월 18일 우리학교를 방문해 홍기삼 총장에게 건학100주년을 기념해 학교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한 발전기금 1억을 기부했다.

홍기삼 총장은 "교육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기부한 전자랜드의 뜻에 감사하며 앞으로 사회와 체육계에 기여하는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어교원 양성 제2기 모집

## 재정적·교육적 효과 기대

제2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은 오는 9월 7일까지 원서접수를 받고 18일부터 수업이 시작된다. 1기는 지난 30일에 47명이 수료식을 마쳤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본 과정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수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되며 한국어능력검정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목표는 늘어나는 한국어교원의 수요를 충족하고 한국어학, 일반어학 등의 이론과 현장에 적용하는 내용을 구성해 한국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되고 전문적인 한국어 교원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 또한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과정을 맡고 있는 김혜숙(국어교육학)교수는 "우수한 강사를 유지했고 학생들의 관심 또한 뜨거워 1기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냉방시설과 공사 소음의 방음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강의실 환경이 확보되지 않아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양성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교원양성을 맡고 있는 한국어센터의 강의실 사용이 독립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제1회 일연 학술상

#### 김상현 교수 수상

김상현(사학) 교수가 일연선사 탄생 800주년을 맞아 제정된 제1회 일연학술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7월 29일 경북 군위군에 있는 인각사에서 열렸다.

김 교수는 "삼삼국유사 연구에 대한 논문 20여 편 학술지 게재 △부각각사비 음기 복원 △고인본 재료 발굴 등의 업적을 높이 평가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 중구청 장학 20명 수혜

중구청에서 지난 달 25일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중구청장학을 선발, 발표했다. 이는 현재 서울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한 학생에게 주는 것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중구발전에 공로한 학생에게 95년부터 수여되어 온 것이다.

매년 한학기에 10명씩 총 20명에게 지급되어 온 이 장학은 지난 학기 지방선거로 인해 미지급됐던 인원을 포함해 이번학기에 20명이 받게 됐다.

### 야구부 3일 결승전

우리학교 야구부(감독=김학용)가 제 61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 결승에 진출했다. 5대 0으로 연세대를 격파한 8강전에 이어 지난 2일 열린 4강전에서는 건국대를 6대 1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3일 오전 11시에는 남해 스포츠파크 야구장에서 원광대와 결승전을 치렀다. 신문제작 일정상 3일 원광대의 게임연구센터(2264-3697)로 문의하면 된다.

# 입체음향 녹음실 오픈

입체음향녹음실(S3스튜디오) 오픈식이 지난 1일 충무로 영상문화센터에서 열렸다.

교육부 지원 영상문화콘텐츠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이곳에서는 음악·음향·영상음악 등의 녹음과 편집이 가능하다.

게임연구센터장 김준(멀티미디어학) 교수는 "현재 높은 수준의 영화촬영 보유 기자재와 더불어 이번 구축으로 음악·음향·영상음악의 장비 수준도 높아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수업·연구활동에 필요한 경우 우리학교 학생은 앞으로 만들어질



충무로영상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무로영상센터 게임연구센터(2264-3697)로 문의하면 된다.

# 금주의 동국인



## 나, 너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실천하는 양태준(세무회계3) 군

'나눔의 삶' 혼란이 단어가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 자신의 일 외에는 관심이 없는 바쁜 사회에서 진정한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 직접 자신의 손으로 사랑의 집을 짓고 복지기관에서 일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해온 양태준(세무회계3)군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는 양 군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여러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주로 노력봉사를 한다는 그는 "사실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어 몸이다 때우는 것이더라도 하는 것이다"며 씩씩하게 웃는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 주고, 사랑의 선교회에서 어르신들의 힘이 돼주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특히 이번 방학에는 한국 대학사회협의회가 주최한 행사의 대표로 필리핀 해외봉사를 다녀왔

다. 그곳의 학생들에게 한국어, 태권도 등을 가르치고 건물 개보수 작업을 했다고 한다. "속소에서 건물보수작업을 하러 이동하는 중 버스에 물이 차서 이대로 한국에 돌아가지 못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떠올린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봉사활동을 시작했지만 오히려 "아이들에게선 때리지 않는 손수함을 배웠고 어른들에게는 인생의 경험을 들어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남을 돕는게 거창한 것이 아니란다. "작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봉사"라며 "다른 학생들도 봉사활동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한다. "자원봉사의 시작은 남을 도와준다는 것이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라는 양태준 군. 양 군은 사회에 진출해서도 전공과 복지를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이나 재단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한다. 그런 그가 어려운 사람들의 길을 환하게 비추주는 등대가 되길, 그리고 한줄기 희망이 되길 바란다. <송> banacream@dongguk.edu

# 동약로

## 고질병

'5월 8일 건강기념일을 시작으로 예정됐던 신공학과과 기숙사 설립은 왜 아직 아무 소식이 없을까?' 라는 의문으로 취재는 시작됐다. 캠퍼스 마스터플랜 중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인 신공학과과 기숙사 기공식이 미뤄진 이유는 선정됐던 업체가 갑자기 취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후 다른 업체 선정은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조두영(전기공3) 학생은 "실현실수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속히 공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신다운(사과대1) 양은 "캠퍼스 마스터플랜이 빨리 추진됐으면 한다"며 "건물들의 층수를 늘리는 등 있는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학교의 공간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그 단적인 예로는 작년부터 신입교수에 대해 배정되는 2인 1실 연구실이 있다. 함께 교수실을 사용하는 김승영(영어영문학) 교수와 이명정(중어중문학) 교수는 "학생들과의 대화는 꼭 필요한 수업과 정면도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옆 교수님의 연구에 방해가 돼서 미안하다"며 그 점이 가장 불편하다고 입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시험기간 즈음엔 공부할 수 없는 열람실이 모자라고, 학교 안에서 쉴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해 학생들은 공간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다.

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동국관, 중앙도서관, 학술문화관, 정보문화관을 각 2층씩 증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팀 박정훈 팀장은 "우리 학교는 남산고도제한 등 여러 제한이 있어서 시·구의 허가와 예산확정, 공사 등을 감안하면 일년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학은 학문을 위해 마련된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공부, 교수들의 연구에 위한 환경조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는 신공학과과 기숙사 같은 요망의 사업에서도 지지부진 하고 있다. 모두의 편의를 위해 학교는 한시 바빠 공간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서>

syooob@dongguk.edu

## 동국 튜터링, 학습동아리 모집

교수개발학습센터에서 '동국 튜터링', 'Do Dream 학습 동아리' 팀을 오는 5일부터 2주간 모집한다. 2차기에 개설된 과목 하나를 선정해서 참가신청서와 학습계획서를 작성한 후 교수개발학습센터에 방문하여 응모하면 된다.

'동국 튜터링' 지원자격은 △튜터=3, 4학년 재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신청과목 성적이 A학점 이상인 자 △튜터=서울캠퍼스 학부 재학생이다. 'Do Dream 학습 동아리' 지원자격은 4-5명으로 구성된 학부 재학생이다.

우수한 팀에게는 △최우수=30만원 △우수=20만원 △장려=10만원을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선정된 팀은 오는 22일 센터홈페이지와 학교홈페이지에 공고된다.

## 휴·복학 인터넷 신청 가능

이번 학기부터 일반휴학·휴학연장·복학신청을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학생들이 학사관련 일을 보기 위해 일부러 학교를 찾는 불편함을 없애고, 행정지원실의 업무과중을 완화시켜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신청방법은 학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신청기간에 하면 된다. 군 휴학, 질병휴학은 첨부서류를 갖고 해당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 신청해야 한다.

### 보리소 법당은 장엄한데...

요즘 너나없이 집값 애기만 나오면 어느 지역이 비싸다는 등, 평당 분양가가 얼마라는 등, 꽤나 할 말들이 많은 것 같다. 집값이 오르면 집을 사야 할 사람이 걱정, 집값이 내리면 집을 팔아야 할 사람이 걱정이 다. 환경오염 얘기 할 때는 녹지를 보존하고 차량 통행을 줄여 한다고 목청을 높이다가 가도 우리 동네 재개발은 꼭 시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를 한 마음에 엄연히 공존하는 이 어쩔 수 없는 두 마음의 모순을 어찌할까. 누구인들 크고 화려한 집에서 살기를 마다하겠는가? 다만 저마다 형편대로 살아갈 뿐이다. 다만 행복한 '가정(home)'을 꾸려가는 살뜰하고 훈훈한 마음이 화려한 '집(house)'을 짓는 열정기에 비해 모자라지 않은지 살펴야 살아야 한다. 외형이 크고 화려하고 비싼 집에서 사는 건 좋은데 그만큼 실속 있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 다행이겠다.

이 학주

스님이 목욕탕에서 스승인 '계현(誠賢)' 스님의 때를 미는데, 스승의 등짝은 육타이 워낙 좋아서 피동피동 살이 올라있었다. 제자가 스승 등의 때를 밀면서 한 마디 내뱉었다. "법당(法堂)은 근사한데 모신 부처가 어떻게 없구나!" 이 때 스승이 머리를 돌려 돌아보니 고령이 또 다시 한마디 하였다. "부처는 영험이 없건만 방광(放光)은 하는구나!" 널리 알려진 지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에 나오는 이야기 한토막인데, 진의(眞意)야 어쨌건 세상살이에서 나 도(道) 닦는 수행자들에게나 외양의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실속을 살펴야 한다는 데는 통하는가 보다.

세상살이하는 사람들, 나라 경영하는 지체 높으신 분들, 공부하는 학생들, 마음 공부하는 수행인들, 너 나 할 것 없이 실속을 차려야 할 때다. 장엄한 법당에서 영험도 없이 방광만 하는 부처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이 학주

예전에 '고령(古靈)'이라는 사범대학부속승과 교법사

사극열풍과 올바른 역사 의식의 필요성

사극 전성시대에서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가들은 역사학 위기를 걱정한다. 하지만 대중문화에서 사극은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 묘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과학으로서 역사의 테두리에 갇혀서 대중과 유리된 학문을 했던 역사가들이 반성을 해야 한다. 이들은 '역사 대중화'를 화두로 삼아야 한다. 그럼에도 사극열풍이 '역사 대중화'의 처방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 2가지다.

첫째, 사극을 통한 역사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우리 역사현실의 총체적 위기와 사회 병리현상을 반영한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자기 몸에 대한 자각이 없지만, 병들면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한 자기반성을 한다. 한 국가와 민족이 위기상황에 직면하면 할수록, 자기 역사에 대한 관심은 높아간다. 그런데 역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역사감정만으로 충족시키는 사극은 병을 악화시키는 '마약'이다.

사극열풍의 원인

고구려를 중국과 대등한 제국으로 만드는 '주몽'과 '연개소문'의 오졸의 못난 우리를 영광스런 과거의 조상에 투사했다. 또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대체역사(alternative history)를 통해 일본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는 '한반도'는 지금 우리 역사현실의 질곡을 타자에게 책임 전가했다. 이렇듯 현실의 답답함



논단 김기봉 경기대 사학과 교수

을 해소하고 결핍을 보상하려는 목적으로 과거 조상들을 호명하는 사극은 '자위행위' 일뿐 미래 역사를 창조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

둘째, 사극은 역사감정 과잉과 역사 의식 결핍을 조래할 위험성이 있다. 대중의 역사감정은 복잡하고 애매하다. 대중은 6·25는 통일전쟁이고 맥아더는 동족상잔의 원흉이라고 발언한 강경구 교수에게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 '동막골'은 재미있게 본다. 한국영화 흥행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괴물'처럼, 영화는 고도의 '정치화'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대중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사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The political is personal)를 치밀하게 구현한 영화를 대중은 "영화는 영화다"로 본다.

사극 제작자들이 가장 손쉽게 대중의 역사감정을 사로잡는 코드는 민족주의

다. 그들은 민족주의 코드를 이분법적으로 사용한다. 고대사는 민족의 영광을 부각시키고, 근현대사는 민족의 오욕을 한풀이 하는 사극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극은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의 역사관을 강요한다. 하지만 21세기 세계화시대에서는 '아와 비아의 상생'을 위한 역사가 나와야 한다.

대체역사가 갖는 위험성

인간이 역사에 대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다. 인간은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서사적 존재다. '국사'란 이 문제의 답을 민족을 주인공으로 이야기하는 매트릭스(matrix)다.

영화 '황산벌'은 우리에게 '국사'라는 매트릭스 밖에서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을 요구했다. 계백 장

군은 처자를 죽이고 황산벌로 출정했다. 그는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우리를 찾는 역사 인식 필요

계백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말했다. 그 이름을 남기는 곳이 바로 역사다. 계백은 역사책에 나온다. 그는 성공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어떠한가? 그녀는 "호랑이는 가죽 땀심에 죽고, 사람은 이름 땀심에 죽는다"고 울부짖으며 항의했다. 결국 역사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은 결국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의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다. 우리는 계백처럼 '역사의 인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의 아내처럼 '인간의 역사'가 되어 한다고 주장할 것인가? 역사가 이 둘 사이의 기약투쟁으로 서술된다.

역사란 나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이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 누가 우리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다. 주인공 기억체, 곧 매트릭스에서 벗어나 내 스스로가 "나는 누구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대학가에 불고 있는 국제화 바람

우리학교, 글로벌화·특성화 전략 주력 세계경쟁력 갖춘 대학으로 거듭나야

최근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대학에 단 한개 대학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우리의 대학 경쟁력이 화제가 되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5개 대학, 홍콩 3개 대학, 싱가포르 2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중국 교통대 순위조사(40%)와 영국 더 타임스지 평가(50%)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평가지표는 △빈번하게 인용되는 연구자 수 △네이처와 사이언스 게재 논문 수 △논문인용지수 SSCI와 A&HCI △교수 대 학생비율 △교수당 논문인용수 △외국인 교수와 학생

수 △도서관 장서 규모 등이었다.

여기에 알 수 있듯이 이번 뉴스위크 평가는 글로벌 교육시스템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학교의 경우에도 글로벌화에 대해 최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지난 학기부터 신입생이 교양필수 과목인 English Conversation과 English Reading을 수강하기에 앞서 레벨테스트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지향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신입생에게 영어강의 수강을 의무화하고, 교원을 초빙할 때 영어능력을 평가하고 영어강의를 일정부분 의무화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학생선발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올해는 중국을 겨냥해서 중국어로 된 홈페이지와 입시요강을 제작했으며 국제교육원 및 대학원과도 연계를 꾀할 계획이다.

학교차원에서의 글로벌화에 대해 김영민(영어영문학) 국제교육원장은 "국제교육원에 국제센터를 신설해 모든 교육의 국제화를 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계화 못지않게 특성화에 힘쓰는 전략도 필요하다. 특히 여기에 우리학교는 100주년 비전선포식의 'ABC+α' 특성화 전략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일(사회환경시스템공학) 교무처장은 "의식의 글로벌화를 바탕으로 불교 등 한국적 특성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교육업적평가제도가 시행됐는데, 지난해부터는 교수들이 매

학기말에 자기평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있다. 심의심(행정학) 기획처장은 "이는 국내에서 선도적이며 교육과 연구를 강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우리학교는 강사료를 올리고 인센티브를 주어 원어강의를 증가시키고, 외국인 교수의 급여 수준 인상 등 제도적 정비를 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의 정년퇴임한 교수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자원봉사 차원의 강좌 개설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내의 대학들이 글로벌 대학의 순위에 들기 위해서는 크게 글로벌 교육시스템과 스타급 교수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번 뉴스위크지 보도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으나 중요한 하나의 지표임에는 분명하다. 우리학교는 앞으로 꾸준한 시스템 정비와 투자를 통해 세계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도약해야 할 것이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사설

2학기를 시작하며

건학 100주년의 해는 반을 넘어 어느덧 2학기가 시작됐다. 지난 상반기 동안은 외부에 100주년을 홍보하는 활동에 힘썼다면 2학기에는 학교 내부를 튼실히 하는 작업이 수행돼야 할 것이다.

학교 측은 방학 중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총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사업에서는 기존에 낙후됐던 강의실 환경을 개선하고, 첨단 장비를 갖춘 강의실을 마련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됐다. 또한 지난 학기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화장실 시설과 복지시설개선을 위한 내부보수공사도 이루어졌다.

이번 환경개선사업으로 학생들과 교수들의 학습 및 연구 환경 개선, 그리고 학습 및 연구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학교 내 행정체계를 변경해 '입학처'를 신설했다. 대학사회는 '경쟁'에 혈안이 돼 있다.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과정에 앞서 잠재력 있는 인재를 발굴해내려는 사전작업에서 뒤쳐진다면 전체 대학경쟁력에서도 뒤쳐질 수밖에 없다. 입학처는 우수인재확보와 함께 그동안에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던 인력부족 등의 원초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들이 학내 곳곳에서 진행 중에 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다. 대학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실천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돼야 한다.

특히 이번학기에는 경영전문대학원을 비롯한 전문대학원 설립과 신공학관 건립 사업이 구체화돼야 하는 것이 주요과제이다.

신공학관 설립과 관련된 업체선정과정은 구성원들에게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고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형식으로 공학관 설립이 추진돼야 한다. 지난 학기부터 시공사 선정 등의 과정이 지체되어 온 만큼 빠른 시일 내로 이뤄져야 구성원들의 호응과 관심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건학 100주년의 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올 하반기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산재해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실천하는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주요 사안들이 결정될 올 하반기는 어느 때보다 동국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동국만평 동국만평 이주현 nitake@dongguk.edu. A cartoon illustration with a man and a thought bubble asking '단명' 교육부총리... 일이나 갈까? (Short-lived Education Minister... work or go?).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겸 주간 홍기삼, 부주관 장길상, 편집장 강지혜. 서울캠퍼스 (우)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 780-714, 경북 경주시 석성동 707.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2006학년도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안내. 1. 모집과정: 교양교육, 전문교육, 부동신과정, 경영관리과정, 특별교육과정, 자격증과정,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2. 지원자격: 일반성인으로 자격제한 없음. 3. 원서교부 및 접수: 2006년 9월 1일(화) ~ 9월 9일(토). 4. 문의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행정지원실.

2006-가을학기 "동국참사람 봉사단 모집(사회봉사 수강신청)" 안내. 교과목: 사회봉사. 이수구분: 자유선택. 수강대상: 재학생(2007년 2월 졸업대상자는 가을학기까지 사회봉사 학점 인정 가능). 이수학점: 1학점. 학점 인정: 성적 반영: 2006-2학기 성적 인정. 봉사활동 기간: 2006년 9월 18일~11월 25일까지(개별일 봉사 일정은 기관과 협의 조정 가능). 학교 주관 오리엔테이션: 9월 18일. 학과별 오리엔테이션: 9월 19일. 유의사항: (성적평가)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성적평가 반영. (봉사소장)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성적평가 반영.

사이버 토익강좌 Global ABC TOEIC. \* 1차 개강: 2006. 9. 11 (월) ~ 11. 10 (금). \* 접수 일: 2006. 8. 25 (금) ~ 9. 8 (금). \* 수강료: (A 강좌) 20,000 (B 강좌) 40,000. "저렴한 가격, 효율적인 나만의 학습을 원하신다면! Global ABC TOEIC 적극추천". 강좌 소개: (접속 사이트 http://www.cattoic.com/eslscat/dgu/). 강좌명: A 강좌, B 강좌. 강의기간: 8주. 내용: (동영상 강좌) "김대균의 TOEIC 문법 & 어휘 마스터", "김대균 Tycoon 기초토익".

# 빠져도 좋아~ 내가 좋아하는 '그것'에!

## 대학생 특유의 열정을 살릴 수 있는 시도 필요

중독[명사]: 1. 생체가 음식물이나 약물의 독성에 의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일 2.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 3.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 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당신은 무엇에 빠졌는가? 요즘 사회는 도박에 흔들렸던 서민들을 바다가 삼키고 각종분야의 이슈는 '중독'이 메꾸고 있다. "나 ○○○에 빠졌어" 라는 말을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요즘. 많은 이들이 '중독'에 대한 사전적 의미 그대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자신이 무언가에 관심이 많이 있다

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중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때는 중독자의 의미를 가진 '홀릭(holic)'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건강한 중독'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생만의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일에 빠져보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는 않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취업의 물결에 밀려 취업에 도움이 되는 토익, 토플공부에만 매진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우리 신문에서 지난 1일 캠퍼스 곳곳에서 시행

한 '현장리서치'를 통해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들 어본 결과 3·4학년 학생들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취업'에 몰두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자유 시간에 하고픈 일을 하면서 노력을 쏟아보려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다. 방학 중 캠퍼스에서 만난 이영지(사과대1) 양은 "그동안에는 수업만 듣기 바빴는데 2학기부터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해볼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은 좋지만, 재학시절 동안 건전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자신의 열정

을 쏟아보는 것도 대학생으로서의 끼와 패기를 살려 시간을 알차게 꾸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무언가 혹은 어떤 일에 빠져 지내는 것은 매일 같은 일상에 지친 대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돌파구가 되기도 한다.

2학기 개강을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한 학기를 알차게 보내려는 학생들의 의욕은 넘쳐있다. 9월 한달의 시간 동안에는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 그 일에 한번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강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 그녀! 소프트웨어에 꽃이다!

한국의 꿈꾸는 여대생, 세계적 거장 빌게이츠를 만나다.

지난 8월에 이매진 컵 2006 인디아에 참가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온 한국 대표팀 '스위트 드림'의 정혜화(정보통신 4)학생.

이매진 컵의 슬로건인 '헬스라이프'에 맞게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들의 포지션이나 자세교정 등 운동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모션 엑서사이즈'로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수상인 빌 게이츠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매진 컵에 참가하면서 그 동안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는 그녀는 "다른 나라의 언어와 사고 방식을 배우고 그들의 기술력을 배우면서 스스로가 세계화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신에게 찾아 온 기회를 잡고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녀는 목표를 위해 젊음을 바칠 줄 아는 열정적인 대학생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전산반 활동을 하며 정보 올림피아드 대회에 참가해 기본기를 다졌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바로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웹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며 실전의 감을 익혔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벌이나 승진에만 매달리기 보다는 좀 더 전문화된 공부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 남들보다 조금 늦게 대학에 진학했다고 한다. 그렇기에 더 강한 의지가 돋보이는 그녀는 "자신의 실력이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진 않다"고 겸손히 말한다.

"좋은 대회가 많은데 학생들은 학교 성적만을 관리 한다"며 자기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



2006 이매진컵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 정혜화(정보통신 4) 양.

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또한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는 바람과 함께 "더 큰 보람은 학교와 학생이 함께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며 보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전 HP CEO 칼리 피오리나를 존경한다는 그녀. 카리스마 있는 여성의 모습이 멋져 그녀 역시도 당당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여성이 되고 싶다고 한다.

"미처야 미친다" 우리에게는 어느 한 가지에 매달려 끝없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대학생다운' 열정이 필요하다. 언제부터인가 광고문구로만 전락한 '대학생의 패기와 열정'의 본 의미를 되돌려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봐야 하지 않을까.

항상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힘껏 뛰어보자!  
(류) jinghe86@dongguk.edu

## 현장리서치 - 2학기에 가장 '중독'되고 싶은것은?

# "이번 학기엔 나도 장학생"

새로운 학기의 시작.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연초에 잡았던 목표들을 상기하고 마음을 다잡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새로이 열정을 쏟아 부을 곳을 찾는 시기이다. 우리 동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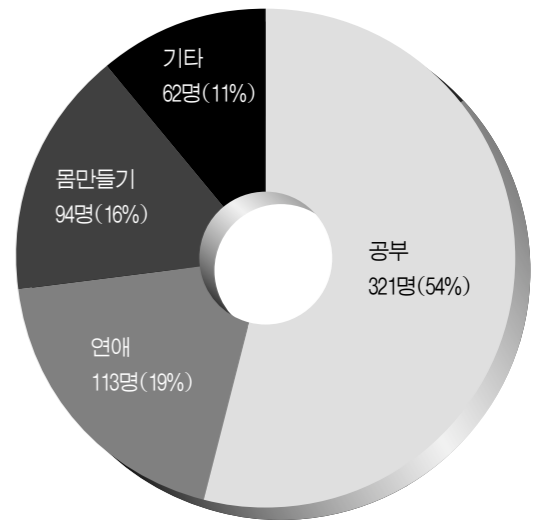
우리 신문에서는 2학기 개강날인 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학교 곳곳에서 '2학기에 중독되고 싶은 것'에 대한 리서치를 실시했다.

전체 응답자 590명을 대상으로 '1. 공부 2.연애 3.몸만들기 4.기타' 네 항목으로 나누어 집계한 결과, 공부에 중독되고 싶다는 학생은 321명(54%)으로 새 학기

를 시작하는 시기이니 만큼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실문조사에 응했던 많은 학생들은 "이번학기엔 공부에 중독 좀 꽤 봐야지"라고 말했다.

"이번학기엔 솔로를 탈출하고 연애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13명(19%), 몸만들기에 중독되어 '몸짱'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학생은 94명(16%)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기타 의견



(응답자=590명)

에는 62명(11%)이 있었다.

기타 의견에는 여행, 취업, 학과생활, 돈, 책, 산책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 취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은 졸업 이후 취업 부담때문에 취업에 중독되고 싶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그 외 다른 의견으로는 구동희(영문학부1) 학생은 "정말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 기타에 중독되고 싶다"고 말했다. 허정백(연극3) 학생은 "내 얼굴에 중독되고 싶다"고 대답을 해 독특한 인상을 주었다.

리서치를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이 보여준 다양하고 재미있는 반응들은 개강 첫날의 즐거움과 설렘이 묻어났다.

2학기가 개강했다. 이번 학기에는 목표했던 것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자신만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동국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서) syoob@dongguk.edu



주몽의 나라 고구려를 찾아가다

# 만주 벌판에서 고구려인의 숨결을 느껴다

지난 7월 25일부터 7일간 우리 학교 학생 37명, 중국관내 고등학생 18명, 교직원 2명, 교수, 중국청 관계자, 고등학교 교사, 신동아 기자 등 총 61명이 건학 100주년 기념 고구려 유적지 탐방을 마치고 왔다.

이번 탐방은 우리학교와 중국청이 총무아트홀의 체육문화시설을 공동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만든 총무장학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편집자

수 세기 전의 인물인 주몽과 연개소문이 연일 계속되는 사극열풍과 함께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이는 동북공정으로 고구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숨겨진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우리의 역사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는 고구려, 21세기에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찾으려 우리는 그 현장으로 떠났다.

지난 7월 25일 우리역사를 눈으로 확인하여 바로 알겠다는 탐방단의 다짐과 함께 고구려 역사 유적지 탐방은 시작되었다. 사학과 윤명철 교수는 "이번 답사를 강의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고구려 역사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고구려 역사 유적지 탐방단은 옛 선조들이 누비던 만주벌판을 밟기 위해 중국으로 향했다.

답사의 시작은 오녀산성이었는데 성을 잘 쌓는 나라로 유명한 고구려답게 '역시 고구려구나!'라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이 성은 해발 800m 이상의 고지에 위치해 있고 높은 수직 벽으로 어떤 세력도 쉽게 접근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또 화강암을 다듬어 개의 송곳니 모양으로 만들어 솟을 뒤 그 사이에 잡석을 채우고 솟을 놓아 견고하고 습기가 차지 않게 만들었다. 오녀산성은 지난 6월 31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전까지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분명 우리의 역사 현장인데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었던 과거를 생각하면, 윤명철 교수의 설명처럼 현실적 영토와 역사적 영토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웅장한 위용을 뽐내는 공개토탈왕비는 화산암을 자연 그대로 사용했는데, 금방이라도 꿈틀대며 살아 움직일 것만 같았다. 장수왕이 세운 이 비에는 천선민족이며 해, 달, 불을 숭배하는 고구려인의 자긍심이 잘 나타나 있다. 마치 먼 훗날 후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공개토탈왕비에 서려있는 듯 했다. 분명 우리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왜곡에 시달리는 비를 바라보니, 비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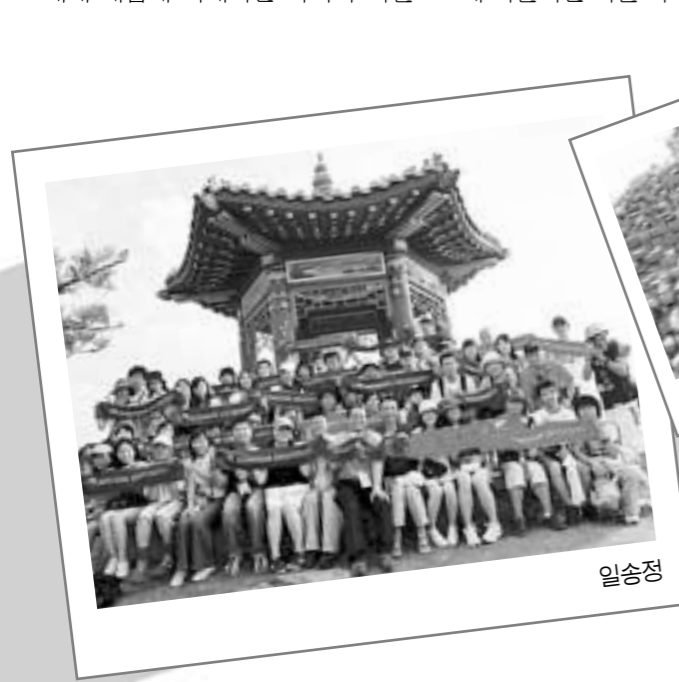
석을 둘러싼 한중일 3국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정확한 탁본과 역사적 해석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탐방단은 백두산 전지를 찾아 직접 북한 땅을 밟는 기회를 가졌다. 전지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깊고 푸른 고요함은 단순히 한 두 마디의 말로는 온전히 표현할 수 없었다. 우견스님(선학1)은 "천지가 마치 성역 같아 몸과 마음이 함께 성화되는 느낌이다"라고 표현했다. 날씨가 흐려 전지를 볼 수 있을지 우려했지만, 다행히 점차 날이 개서 탐방단은 가슴 속 깊이 전지를 담고 올 수 있었다.

탐방을 마무리 하며 윤 교수는 "고구려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고구려인들처럼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탐방을 통해 역사는 과거일 뿐만 아니라 미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고구려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그들의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모든 일정을 마쳤다.

(최)

lisonaral@dongguk.edu



예샤오원(葉小文) 중국 국가종교국장 기자간담회

## “한국과 중국 불교교류를 통해 불교 발전에 힘쓰겠다”



지난 8월 25일 중강당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예샤오원(葉小文) 중국 국가종교국장에게 그동안 국가 간 교류의 계기를 마련한 공적을 높이 평가해 명예철학박사가 수여되었다.

이제 앞서 24일 본관 집전실에서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우리학교 이사장인 영배스님을 비롯해 많은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예샤오원(葉小文)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희열을 느낀다"고 간단하게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그는 "중국 국가종교국장으로서 소임을 다해 우리학교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중 불교교류를 위해

많은 종교단체와 정부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샤오원(葉小文)은 지난 4월에 중국에서 열린 제1회 세계불교포럼을 성공적으로 주최한 바 있다. 이에 그는 "이번 불교포럼의 성공은 한국 불교계의 지원이 중요했다"며 차기대회는 한·일 불교계와의 충분한 상의를 통해 공동으로 연구해서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중국 정부는 불교 사찰에 해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

다. 이에 대해 그는 "불교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찰을 신중하고 복원하여 사찰 자체가 문화자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찰을 부흥시켜 내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사회의 조화와 화해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중 불교교류와 관련하여 교류 프로젝트를 만들어 이를 통해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예샤오원(葉小文)은 "중국 대는 불교종립대학으로서의 문화적 자원이 풍부해 희망과 기대가 크다"며 "불교의 화(和)를 깨달아 넓은 지식과 야망을 가지면 높은 차원의 세계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viki26@dongguk.edu

## 중앙도서관 신작도서

스타일 북 서윤영·장윤주 지음 / 시공사, 2006.



스타일리스트 서윤영과 모델 장윤주가 꾸미는 패션이야기. 그녀들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스타일'을 입으라고 조언한다. 스타일이란 요즘 흔히 '원장녀'로 일컬어지는 명품만 따라다니는 천박한 유행이 아니라, '나만의 원칙과 방식'으로 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단순히 비싼 옷을 잘 입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삶을 이끌어 가는 자신 특유의 방식을 찾고 가꾸는 것이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내면의 가치를 멋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보는 책. 글 가운데 당신의 옷장을 천천히 들여다보며 새로운 유행을 직접 창조하시는 건 어렵까요?

세계 최고를 찾아가는 여행 권기항 지음 / 랜덤하우스 중앙, 2006.



여행관련 서적은 참 많이 출판되고 있다. 그만큼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비경이 많다는 증거이리라. 직업이 '여행가'인 저자가 전작인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33-세계편'에 이어 내놓은 여행안내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과 기네스북이나 세계 유명 언론매체에서 인정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30곳을 선별하여 풍부한 사진자료와 함께 엮어 내었다. 여행준비로도 좋지만, 미리 보아두기만 해도 즐거움으로 남을 책. 여행하기 좋은 시기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놓치기 쉬운 비자 관련 사항, 챙겨 가면 유용한 물품, 건강을 위해 체크할 사항, 그곳에서 열리는 특별한 축제 및 행사 등을 각 여행지마다 수록하였다.

## 달하나 천강에

### 선택사항과 필수사항



최현각 불교대학 선택과 교수

대학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필수'와 '선택'이 아닐까 한다.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이수학점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필수와 선택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제때 졸업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도 선택사항과 필수사항으로 대별된다. 선택사항은 흔히 적당하다는 말로 포장되기도 한다. 적당히 눈감아 주고, 적당히 거짓 말 하고, 적당히 치팅 페이퍼를 활용하는 것인데, 선택사항을 요령껏 잘 하면 체체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반면에 필수사항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윗분을 공경하고, 형제간에 따랐고, 소독과 분배를 균등하게 하는 것 등이다. 이것은 인간이 행할 당연한 도리지만 족쇄처럼 여기기도 한다. 더러 필수사항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을 보고 요령이 없다거나 진부한 사람이라고 평하기도 한다. 하지만 적당하란 마치 뜰과 같다. 작은 뜰이라도 소홀히 하면 크나큰 뎀도 무너질 수 있다. 적당하는 자신이 편하기 위해 만들어낸 공인 받지 못한 처방전이기에 때문에 이것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할 수는 없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천상의 도리마저 속일 수는 없다. 옛 성인의 말씀 중에 '하늘 세계의 그물은 크고 성급지만 결코 세지 않는다(天網恢恢疎而不漏)'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유럽의 원자력연구소는 각국의 과학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www(world wide web) 체계를 개발했다. 그 결과 키보드만 두들기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를 빠짐없이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모든 정보가 씨줄과 날줄 안에 잡히는 세상이 되었으니 옛 성인의 가르침과 과학자들의 생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인과라는 말을 덧붙여도 쉬 들어 넘길 말이 아니다. 이러 이러한 씨를 뿌리면 그 결과 틀림없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인과다. 옛날 한 주모는 술독에 파리가 빠지면 건져내어 마른 땅에 놓고 재를 뿌렸다. 재가 수분을 흡수하여 파리가 다시 날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많은 파리를 살렸는데 어떤 이의 모함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죽을 상황에 처했다. 그런데 법관이 판결문을 쓰려고만 하면 파리가 붓 끝에 날아들어 판결문을 쓸 수가 없었다. 현명한 법관은 이를 이상히 여겨 사건을 다시 조사한 끝에 그녀의 결백을 밝혀냈다. 주모의 작은 지혜가 훗날 자신의 생명을 구출하는 빛이 되었던 것이다.

일월성신은 각각의 몸과 기능이 있으며, 이 세상에 무엇 하나 하찮은 것이란 없다. 조금 불편하거나 능력이 오르지 않는다고 규칙을 어기고 결과지상주의에 매달리다 보면 순간은 달콤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결국 자신을 파멸로 내 몰고, 상도(常道)를 이탈하여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양심의 회복은 배운자의 몫이며, 배운자는 사회의 목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의 불순물인 경우가 많은 것이 슬픈 현실이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의 길로 가야할 것이다.

## 이야기 동국 100년

### 일제시대 외형적 성장

#### ⑨ 해화전문학교 시대

종단은 1940년 5월 30일 중앙교무원 임시이사회를 열어 중앙불교전문학교를 '해화전문학교(海花專門學校)'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이는 종단이 '조계종'으로 종명 변경을 추진하면서 학교 경영방식을 쇄신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해화'라는 이름은 학교가 위치한 지명일 뿐 아니라 세상을 은혜롭게 교화해간다는 의미에서 불교정신과 합치되는 것이기도 했다.



해화전문학교 교사

1940년 6월 10일, 해화전문학교로의 교명 변경과 학교 증설이 인가되었다. 이로써 10회에 걸쳐 219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중앙불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불교와 일반교육을 포괄하는 새로운 체제의 전문교육이 실시되었다. 중앙불전 시대에는 불교과만을 두어 불교학과 동양문학을 가르쳤지만, 해화전문학교에서는 홍아과를 신설하여 제반 문화 사업에 종사하려는 학생들에게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홍아과의 신설은 한국청년들을 만주로 보내 대륙진출의 첩경으로 활용하기 위한 일제의 야욕과 무관하지 않았다.

해화전문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이었으며, 학생 정원은 불교과와 홍아과 모두 3학급으로 150명씩이었다. 전시 준비체제의 강화로 학생회 활동은 기해할 수 없었으나 여류방학 때마다 학생들이 주도했던 지방순회강연이나 교내 불교활동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또 문화창작의 전통도 꾸준히 이어져 조지훈과 조연현 같은 학생 문사를 배출하기도 했다.

일제는 중일전쟁을 계기로 학교마다 근로보국대를 조직하고, 한국인들을 강제노동에 징발하였다. 따라서 해화전문학교 시대는 학과의 증설 등으로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일제의 식민지 교육에 매몰되었던 불행한 시기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인 교장 타카하시 도오루(高橋亨)가 6월 19일에 취임하였다. 그는 부인과 동시에 박헌영 명예교수를 비롯하여 김영수·권상로 등 대부분의 한국인 교수를 파면시켰다. 학교에는 일본군 장교가 상주하였고, 학생들에게는 군사교련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태평양전쟁을 계기로 전시 동원체제를 한층 강화하고 1944년 1월부터 학병들을 입영시켰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동원이 확대되자 대부분의 학교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해화전문학교 역시 1944년 5월 30일에 강제 폐교되고 말았다. 이때 폐교된 해화전문학교는 해방을 맞을 때까지 1년 이상의 입학기록을 보내게 된다.

이용범 소설가·동국 100년사 대표 집필자

퇴임 교수 인터뷰

“우리는 영원한 동국 가족”

장오현(경제학과 교수), 김태홍(국제통상학과 교수), 박선영(교육학과 교수), 문명대(미술학과 교수)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기사가 게재되지 않습니다. 편집자



이 정 순 교수 (문과대 독어독문학과)

독일 시인 릴케는 작품 '두이노의 비가'에서 이별의 모습을 '남아 있을 상대의 어깨 위에 무개도 없는 양 가법게 엮은 손의 모양'이라고 묘사했다. 릴케의 바람직한 이별의 모습처럼 동국 안에서 희노애락을 절제하며 동국을 떠난다는 이정순(독어독문학) 교수. 이 교수에

“남다른 행운을 가져다준 동악”

게 퇴임소감을 묻자, “삶의 가장 중요한 기간을 동국대와 함께 했는데 어느덧 정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그는 20년 동안 동악에서의 시간을 “정겨운 제자들과 함께, 학문적·인간적으로 각기 개성이 뚜렷한 동료 교수들 곁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회상한다. 또한 평생 만나기 힘든 값진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재직 중에 얻었다. 그만큼 20여년의 교수생활이 자신에게 남다른 행운을 가져다 줬다는 것이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그리고 주위로부터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이 교수의 말에 자신의 삶에 대한 겸손함이 묻어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학교에서 어떤 일에 혼신을 다해 몰두할 수 있는 희열도 맛보았고, 좌절과 환멸도 있었다고. 학교에서의

추억을 오직 자신만의 이야기로 간직한다는 이 교수는 앞으로 살아갈 정신적 양식이 넉넉히 비축된 셈이라며 미소짓는다.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학생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는다. “학생들이 바깥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염려하며 “박을 의식하기보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얼마 후 여행을 떠난다는 그는 학문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퇴임 후에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 가겠다”는 모습에서 동국에서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 믿음을 지키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조용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옹호해 추구하는 이 교수의 모습에서 ‘외유내강’ 네 글자가 빛나고 있었다. (송) banacream@dongguk.edu



백 경 남 교수 (사법대 정치외교학과)

“자기 영역에 10년을 투자하고 10년 기다리는 날 다시 만나자”고 학생들과 약속했다는 백경남(정치외교학) 교수. 학부 재학 시절에 28년의 재직기간을 더해 총 32년 동안 우리 학교와 함께 한 그는 학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교수라는 직업에 소임을 다해 보람을

“동국과 함께 한 내 생애 황금기”

느끼고, 강의를 함께 한 모든 학생이 소중하다”는 백 교수는 인터뷰 도중 지나가는 학생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격의 없는 사제지간의 모습을 보여줬다. 강의와 연구, 정부진출의 화려한 경력에 있는 그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견뎌야 한다”며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어린 시절 산골 마을에서 항상 산 너머의 세상을 궁금해 하면서 자랐다고 한다. 좀 더 넓은 세상을 알게 된 후에는 세상이 주목하는 UN 무대에 한 번 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 2000년 UN 무대에서 연설을 했고, 꿈을 그리며 노력하면 결국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줬다. 학생들이 넓은 세상을 향해 걸음을 내딛길 원한다는 백 교수는 “국제 사회에

많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에 생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오랫동안 누구보다 큰 열정을 가지고 학교에 몸담았던 그는 “우리학교는 부처님의 정신으로 탄생한 대학인만큼 사명을 가져야 한다”며 정보와 지식 연구 중심의 대학, 인간성의 향상과 실천적·인문학적 지식의 요람이 되어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퇴임 후에도 과거의 일들을 꾸준히 되돌아 볼 것이라고. “내일은 오늘의 대가이다. 내일을 걱정하기보다는 현재에 충실하면서 자기관리를 하라”는 말에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넓은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 (류) jinghe86@dongguk.edu

“가자! 열망의 꿈에서 도전을 향해”



박 경 하 교수 (사법대 행정학과)

끊없는 도전과 꿈을 향한 노력으로 후학의 귀감이 되길 원하는 박근호(행정학) 교수는 요즘 교육자로서, 사회지도자로서 무엇을 남기고 떠나는가를 자문해 본다고 한다. 그에게 퇴임은 끝이 아닌 또 다른 도전이다. “이젠 텔레아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동국과의 44년 인연은 각별하지”라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 박 교수. “학생들과 호흡을 맞춰온 것이 일상이 돼버렸는데 떠나는 지금은 서운한 마음이 제일 크다”고 말한다. 어렸을 때부터 대화하며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서 박 교수가 걸어온 학문의 길은 자연스럽게 교수로 이어졌다. 끊임 없이 진리를 찾아 나서며 스스로 성취한 모습이 보람되었기 때문에 40여 년간 한

길만을 걷게 됐다고. 그는 지난 62년 우리학교 행정학과 학사를 거쳐 석·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고 지금까지 후배들을 가르쳐 왔다. 수십 년간 교단 위에서 학생들에게 강조한 것은 ‘새로운 것을 터득하고 자기를 가꾸아가는 것’이었다. “자기성찰을 함으로써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는 대학생활에서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요즘 젊은 학생들이 안정을 추구하며 배움에 있어 당장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후배들에게 공동체에 보람된 존재가 되어달라며 당부하는 박근호 교수. 특히나 우리학교에 ‘능력 있는, 보람된 존재’가 되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선 끊임없이 탐구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또한 현재 다른 대학들이 성장하는데 학교자체의 사고와 체계가 획기적인 개혁을 일구어 내 시대에 앞서가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퇴임 후 박 교수는 이전부터 관심을 가져 온 이념·철학분야를 연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퇴직 후 새롭게 시작할 인생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크다네.” 40여 년의 세월을 함께 했기에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는 이별. 아쉽지만 다시 큰 도전을 품고 떠나는 그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송) sonhee1347@dongguk.edu

“학생과 하나가 되려는 노력이 중요”



이 상 현 교수 (사법대 경찰행정학과)

“인생이 연극이라면, 나의 인생은 희극인 것 같다”며 지난 28년간의 교직생활을 되돌아보는 이상현(경찰행정학) 교수. 10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에 교직생활을 마치고 퇴임하는 데 감사하다는 말로 그동안 동국 울타리 안에서 보내온 시간을 정리했다. 퇴임하는 순간까지 강단위에서 그가 추구해온 수업은 바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수업’이다. 이 교수는 “나 혼자 열심히 떠든다고 해서 수업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수업의 중심은 학생이 되어야만 하고, 학생들이 답을 만들어 나가는 수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해 온 그것기에 많은 학생들

이 그의 강의를 기다리고 청강했다. 가르치는 일을 사명으로 느끼고 임했다는 이 교수는 우리학교에서 최초로 ‘범죄 심리학’ 분야를 창시했던 것과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부패와 대응책’을 강의했던 것에 대해 교수생활동안의 보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영광이었다며 뿌듯한 미소를 짓는다. 예전과 달리 요즘 학생들이 오로지 취업을 위해서만 공부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하는 이 교수. “학생들의 한숨 가득한 얼굴을 보면 딱하다. 대학에서란 즐겁 수 있는 낭만과 자율을 즐기고 지적 체를 갖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제자이자 후배인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말도 잊지 않는다. 신입교수들에게도 “점수를 잘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 참된 의미의 교육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8년간 강단위에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선사했던 그의 희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교수는 퇴임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기점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국범죄연구소’를 위해 앞으로 더 연구하고 공부할 뜻을 내비쳤다. 자신의 분야에서 끊임없는 열정을 보여준 그에게서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 vik126@dongguk.edu

“모교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



오 정 수 교수 (생체대 산림자원학과)

생각만으로도 푸근한 그 곳. 마음의 고향. 지난 50여년 동안 우리학교는 오정수(산림자원학) 교수에게 있어 마음의 고향이었다. 한결같이 학교를 고향처럼 생각하고 아꼈었던 그에게 마음 속 고향의 추억들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 왔다. “교수와 제자관계나 부모와 자식관계는 정도의 차이일 뿐 서로 같다네” 오 교수에게는 자신을 거쳐 간 제자 한명 한명이 모두 천자처럼 귀한 존재들이다. 학교에서 만난 제자들과의 인연의 끈을 소중히 하지 않으려 그들의 일탈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고 있다. 졸업생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설 정도이다. 오 교수는 “교수는 연구와 강의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의 사

회진출 또한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가 교수해 온 지침이기도 하다. 학교졸업감의 때 오 교수는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흐르지 않는다’는 구절을 인용해 56년의 오랜 전통을 가진 산림자원학과에 대한 자부심을 학생들에게 심어줬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마다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오 교수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가길 당부한다. “H자만 봐도 허버드 대학임을 짐작하지, 앞으로는 D자만 보고 우리대학인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발전해야 돼”라며 오 교수는 100년 후 우리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말의 느린 걸음을 재촉할 때 체적질을 하듯, 동국의 다음 100주년을 위해 모든 동국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국대는 나의 고향이자 집이다”라며 인터뷰를 시작했던 오 교수. 50여년 동안 가슴에 품고 생각하며 그의 마음속 고향이었던 우리학교를 품에서 내려놓지만 그의 가슴속엔 영원토록 ‘제2의 고향’으로 남을 것이다. 동국사랑 외길만을 고집해온 그에게서 모교사랑이 여전히 느껴진다. (윤) yiyoonjae@dongguk.edu

제2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모집(야간반)

- 개강 전 : 등록금 전액 환불
○개강 1주일 이내 : 등록금 70% 환불
○개강 1주일 후 : 환불 불가

Table with 4 columns: 영역, 과목, 시수, 영역. Rows include Korean Language, English, and Korean Culture courses.

- 원서접수 : 2006. 8. 21. ~ 9. 07.
○합격자발표 : 2006. 9. 08.(금)(인터넛 및 개별통지)
○등록기간 : 2006. 9. 09. ~ 9. 13.
○수업기간 : 2006. 9. 18. ~ 12. 01.
월, 화, 목, 금 18:00 ~ 21:00

학생상담센터 이용 안내

- 학생상담센터에서는 개인 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각종 프로그램, 및 조사활동, 특강 등을 통해서 많은 동국인들의 고민에 대한 문제해결 및 예방, 진로탐색, 자기개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개인 상담
- 성격, 대인관계, 정서, 가정문제, 진로 및 직업 특성 상담 이상문제 등등
2. 심리검사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작된 심리검사를 통해 개인의 인지, 성격, 적성, 정서, 흥미등을 살펴보고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 상담을 해드립니다.
3. 집단상담
진로 선택을 위한 능력, 인성의 선조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직업과 관련된 활동적 흥미, 성격, 유능감, 가치, 직업준비 등을 고려하여, 6개의 직업적 성격유형 중 자신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알아보고, 자신의 진로를 찾아기도록 돕는 검사입니다 (검사시간: 약 30분)
4. 심리검사
진로 선택을 위한 능력, 인성의 선조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직업과 관련된 활동적 흥미, 성격, 유능감, 가치, 직업준비 등을 고려하여, 6개의 직업적 성격유형 중 자신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알아보고, 자신의 진로를 찾아기도록 돕는 검사입니다 (검사시간: 약 30분)
5. 집단상담
개인의 진로와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 내가 보는 타인, 타인이 보는 나, 이들의 반응에 대한 나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탐색해보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6. 교직원 및 교원 자녀대상 프로그램
교직원 및 교원 자녀분들 중, 초중학생(4~6학년)을 대상으로 성격과 자질검사를 실시합니다. 자녀들의 성격 그리고 자질이 진취적으로 고르게 발달하고 있는가를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특히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해와 진로도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습니다.
가. 검사종류 : 아동용 성격검사 MMTC(검사시간:30 분), 아동용 지능검사K-WISC(검사시간: 120 분)
나. 검사기간 : 방학 중
다. 접수방법 : 학생상담센터 방문 및 전화신청
[이용 절차] 센터 방문(본관 2층) → 예약 → 상담 및 심리검사 실시 → 상담 및 심리검사 해석
학생상담센터는 동국인들의 편익하고 자유로운 연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전화번호: (02-2260-3301, 3302) 홈페이지: http://counseling.dongguk.edu

# 2006학년도 2학기 신규교수

## 김순영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기대와 함께 두려움을 줍니다. 갑자기 더 어깨가 무거워진 듯한 느낌이 드네요. 동국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꿈꾸고, 함께 성장하는 '좋은 선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국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영어통번역학 전공 △동국대 영어영문학 △한국외국어대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석사 △동국대 영어영문학 박사

## 이명정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활동한 동국대학교 학생을 가르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2학기부터 '중국어입문', '현대중국어' 그리고 '중국어작문' 세과목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한국학생을 가르쳐온 경험을 잘 살려 여러분의 중국어실력 향상에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중어중문학 관련 전공 △중국 北京語言대 중국어언문학 석사 △고려대 중어중문학 박사 △성공회대 중어중문학과 원어인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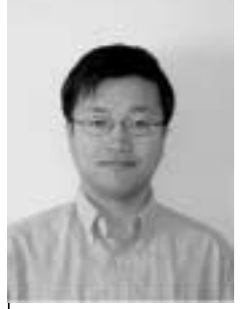
## 최정철 이과대학 화학과 부교수



100년 전통의 명문 사학 동국대학교의 가족이 된 것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근한 교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훌륭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물리화학실협 전공 △서울대 화학 석사, 박사 △수원대 화학과 부교수

## 정상민 이과대학 생명과학과 조교수



100주년 기념과 함께 동국대학교 가족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입니다. 학생들이 전공지식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세계의 어느 대학에도 뒤지지 않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가겠습니다.

△식물유전생리 전공 △단국대 농학 △서강대 생명과학 석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식물유전생리 박사 △Horticultur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Research Associate

## 장원희 이과대학 생명과학과 조교수



떨리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동국대학교에 등지를 들고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도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었다가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과학을 공부하는 과학자라 생각됩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보아요.

△시스템생물학 또는 발생학 전공 △서울대 농화학 △University of Dayton Biology 석사 △Rice University Biochemistry and Cell Biology 박사

## 임규철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능력이 부족한 저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전공분야는 '개인정보보호'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멋진 후배님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자식노릇 잘 하던 더욱 좋습니다. 제가 그러지 못했거든요. 만해관에서 뵙겠습니다.

△과학기술법 전공 △동국대 법학 석사 △독일 Trier대 법학 박사

## 정용국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동국대가 백년을 자라온 나무라면 학생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그 열매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멋진 모습으로 영글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저의 전공은 매스컴 효과론이며 특히 매체 효과가 발생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매스커뮤니케이션이론 전공 △서강대 신문방송학 △Iowa State University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s 석사 △Indiana University Telecommunications 박사

## 김효규 사회과학대학 광고홍보학과 조교수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생각하니 벌써 마음이 설레네요. 오늘날 광고가 우리 생활에 어떠한 역할을 하며 동시에 우리는 광고를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광고에 관한 모든 주제는 열려있습니다.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은 물론 광고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때로는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광고이론 전공 △고려대 신문방송학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Advertising 석사, 박사 △제일기획 차장

## 이재화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먼저, 동국대학교 새 백년의 역사를 창조하는 데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항상,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연구와 교육에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국 캠퍼스에서의 만남마다 뜻있는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무역정책 전공 △연세대 경제학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석사 △Duk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계명대학교 전임강사

## 김현동 경영대학 경영학과 조교수



기업과 사회가 변하는 것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배출하여 개발하는 데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충을 되새기면서 동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학생, 교수, 교직원과 더불어 함께 호흡하며 열심히 연구하고 강의하여 동국대학교가 어디에서나 꿈을 펼치고 실행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직인사 전공 △한국외국어대 무역학 △Michigan State University Human Resources and Labor Relations 석사 △The Ohio State University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s 박사 △The Ohio State University, Research Associate

## 성상현 경영대학 경영학과 조교수



꿈의 문을 두드리려는 큰 사람들, 동국인이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의 전공은 경영학 중 인사조직 분야로, 다양한 사람들이 조직에서 어떻게 어울려 행동하며 살아가는 지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연구하고 배우며 꿈을 향해 도전합시다!

△조직인사 전공 △서울대 경영학 △연세대 경영대학원 석사 △연세대 경영학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정 욱 경영대학 경영학과 조교수



제 강의들은 최근 기업들이 어떻게 실질적인 도구나 기술을 통해 시장에서 자신만의 경쟁우위를 창출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강의로 여러분의 과학적 사고능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생산·운영관리/계량경영 전공 △성공관대 산업공학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Industrial & Systems Engineering 석사, 박사 △Samsung SDS, SCM Business Consulting Group, Senior Consultant

## 최경규 경영대학 경영학과 조교수



꿈의 두드림 (Do Dream)은 들을수록 감칠 나는 말이에요. '문을 두드림'과 어감이 비슷하여 꿈을 위해 미래의 문을 열십시오 두드린다는 의미였죠.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꿈을 실현하도록 모든 힘을 모아 합쳐서 문을 두드리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하는 데 한 자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 전공 △서울대 사법대학 △Harvard University J.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석사 △Stanfo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박사 △서울시경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전승우 경영대학 경영학과 조교수



저의 주된 연구관심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소비행동양식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동서양의 소비자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행동론, 마케팅리서치, 마케팅원천 등의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동국가족, 한분 한분을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면서, 최상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케팅 전공 △성공관대 한국철학 △Baruch College/CUNY 경영학 석사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마케팅 박사 △Management Studies, University of Minnesota Duluth, 전임강사

## 김왕준 생명자원과학대학 식품공학과 조교수



정확히 49살 36일 만에 모교의 식품공학과 교수가 되었다. 우리 나이론 51살, 남들은 말한다. 50이 넘어도 교수가 될 수 있다! 흑자는 말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마릴린 기를 보면 silver thread와 눈가에 주름이 점점 늘어나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옛날 30여년 전 동국대학교 학생으로 돌아가 있다. 정말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부족하나를 불러준 나의 모교 동국대학교에서 나는 용광정전하리라.

△식품생물공학 전공 △동국대 식품공학 석사 △University of Wyoming Animal Science Department 박사 △한국식품연구원 선임연구원

## 김범주 공과대학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조교수



동국 100주년을 맞이하여 동국가족이 되었다는 점에 무한한 기쁨을 느끼며 강의실에서 새로운 만남 학생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갖는 기대만큼이나 학생들도 저에 대한 기대가 크리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연구하는 동국인이 되리라 다짐합니다.

△자연해석 전공 △한양대 토목공학 석사 △Purdue University 토목공학 박사 △한국수자원공사 담기연구소 선임연구원

## 원기훈 공과대학 생명·화학공학과 조교수



먼저 100년 전통의 명문 사학 동국대학교의 가족이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무엇보다도 옹호되는 기초교양을 담당하는 교육원에서 학생들과 만날 수 있게 된 것 또한 저에게는 행운입니다. 동국인 여러분이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진정한 과학기술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화학공학 전공 △포항공과대 화학공학 석사,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신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정진우 정보산업대학 컴퓨터공학과 조교수



어렸을 적부터 컴퓨터에 빠져들고 있었던 코카라는 다 자란 뒤 충분히 취미를 뽐낼 수 있게 되어 여전히 빠져들며 연구하고 심지어는 주변에 불이 나도 도망치지 못한 채 지켜보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대학입시로 대학교에서 는 취직이라는 틀에 갇혀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는 요즘 학생들의 모습이 이와 비슷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새 학기부터는 자신의 가능성을 좀 더 믿어보는 희망찬 동국인이 되어봅시다.

△로보틱스 전공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 석사 △한국과학기술원 전자전공학 박사

## 임대운 정보산업대학 정보통신공학과 조교수



행운이란, 꿈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 사람이 드디어 기회를 만났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너무 쉽게 지나칠만한 결과가 결정될 일에는 도전한다는 말을 붙이지 않지요. 비록 어려워 보이지만 가지 않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도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동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저에게는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변화시킬 여러분 동국의 인재들과 만나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일, 그것은 제게 즐거운 모험입니다. 그 모험이 여러분과 함께여서 더 의미가 있고 자랑스럽습니다.

△컴퓨터 및 정보통신 분야 전공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 석사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박사 △한국산업기술대 컴퓨터공학과 겸임교수

## 김창균 예술대학 미술학과 조교수



푸른 꿈을 안고 돌아오르려기 시작한지 30여년이 흐른 지금 마침내 그때의 꿈을 활짝 펼칠 기회를 갖게 되어 가슴 벅차며 기쁘다. 비록 많이 많은 시간이지만 국내 유일무이의 불교미술전공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불교미술작가로 이룬 것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힘과 뜻을 다하겠습니다.

△불교미술(정통불교회화) 및 이론 전공 △동국대 미술학 △홍익대 미술사학 석사 △동국대 미술사학 박사 △문화재단 전문위원

## 최영환 예술대학 연극학과 조교수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동국가족이 되어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저의 전공은 연극학과 내에서 뮤지컬 분야입니다. 공연산업으로서 뮤지컬 시장은 해가 거듭될수록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동국대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의 뮤지컬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여 배출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극실기연극연출 및 연기 전공 △동국대 연극영화학 △세일리노이주립대 연극학 석사 △경원문화산업대 뮤지컬과 초빙전임강사

## 김중영 영상미디어학부 영화영상학과 조교수



올 여름 지난한 무더위에 마곡사 인근 초등학교의 영화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돌팔이 썸뿔 또 하나의 작은 인연 앞에 디지털시장을 한 장 덩그러니 남긴 채 이제 모교로 올라오려 합니다. 나를 있게 하신 은사의 자리에 감히 대신하려 힘은 또 다른 인연이겠지요. 본디 영화 만들기는 소흥의 예술입니다. 배운 대로 가르쳐온 대로 소통한다면 내가 그려왔던 많은 연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영화연출/시나리오 전공 △동국대 연극영화학 석사 △동국대 영상대학원 영화영상제작학 석사 △공주영상대 조교수

## 박진희 교양교육원 조교수



10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에 동국대의 새로운 가족 일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무엇보다도 옹호되는 기초교양을 담당하는 교육원에서 학생들과 만날 수 있게 된 것 또한 저에게는 행운입니다. 동국인 여러분이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진정한 과학기술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사 전공 △서울대 물리학 △세명대 공과대 과학기술사학 석사, 박사 △국립대 사회과학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권보래 교양교육원 조교수



한껏 설레면서도 조심스런 마음입니다. 한창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동국대학교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걸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첫 마음 한결같아, 그러면서도 새 세대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살고 싶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문화연구 전공 △서울대 국어국문학 석사, 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LA Visiting Scholar

## ● 경주캠퍼스 ●

### ▲이영호

△불교문화대학 선학과 조교수 △한국선사상 전공 △동국대 승가학 △하와이주립대 종교학 석사 △캘리포니아주립 버클리 불교학 박사 △동국대 정각원장(서울)

### ▲고일석

△과학기술대학 컴퓨터·멀티미디어학과 조교수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전공 △경북대 전자공학 △경북대 컴퓨터공학 석사 △연세대 컴퓨터산업시스템공학 박사 △충북과학대학 조교수

### ▲김수동

△사범교육대학 조교수 △교육학(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전공 △고려대 교육학 석사, 박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원

### ▲이재현

△한의과대학 한의학과(기초) 조교수 △분초학 전공 △경희대 한의학 석사, 박사 △경희대 약대학 한약학과 조교수

### ▲김수아

△한의과대학 한의학과(기초) 조교수 △생화학 전공 △한림대 자연과학대학 유전공학 △가톨릭대 의과대학 의학 석사·박사 △연세대 구강종양 연구소 연구조교수

### ▲이중현

△의과대학(경주병원) 의학과(임상) 조교수 △소화기내과(건강증진센터 전담) 전공 △동국대 의학 석사 △울산동강병원 소화기내과

### ▲강학주

△의과대학(경주병원) 의학과(임상) 조교수 △신장내과 전공 △동국대 의학 석사, 박사 △경북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 ▲최진수

△의과대학(경주병원) 의학과(임상) 조교수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전공 △동국대 의학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이비인후과

### ▲박수근

△의과대학(경주병원) 의학과(임상) 조교수 △피부과 전공 △가톨릭대 의학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피부과

### ▲김상규

△의과대학(경주병원) 의학과(임상) 조교수 △산업의학과 전공 △영남대 의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산업의학과

### ▲정재락

△의과대학(포항병원) 의학과(임상) 조교수 △류마티스내과 전공 △동국대 의학 석사 △동국대학교 포항병원

### ▲서우경

△의과대학(포항병원) 의학과(임상) 조교수 △소아과 전공 △동국대 의학 △동국대학교 포항병원

### ▲권성근

△의과대학(일산병원) 의학과(임상) 조교수 △이비인후과 전공 △서울대 의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 ▲김어진

△의과대학(일산병원) 의학과(임상) 부교수 △병리과 전공 △서울대 의학 석사, 박사 △순천대학교 천안병원 병리과

### ▲안연순

△의과대학(일산병원) 의학과(임상) 부교수 △산업의학과 전공 △충양대 의학 △연세대 보건학 석사, 박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클릭! 대학가 특별한 '광장' 속으로

## 대학가 생활정보 포털사이트 큰 호응 동국인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은 아직 없어

80~90년대에 대학가를 뒤덮었던 대자보나 학교 홈페이지 혹은 학보가 학생들이 학내 소식을 알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이제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크고 작은 정보부터 시시콜콜한 얘기에 이르기까지 실시간으로 소식을 공유한다. 몇 년 전부터 대학가에는 따끈따끈하고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콘텐츠가 가득한 생활정보 포털 사이트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대학가에서는 서울대의 '스누라이프(SNULife)', 성균관대의 '성대사랑(skulove)', 이화여대의 '이화이언(ewhaian)' 등의 커뮤니티가 여론형성의 사랑방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울대의 스누라이프는 약 3만 5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최근에는 차기 총학생회에 대한 논쟁으로 뜨겁다. 스누라이프 운영자 김두수(경제학부4) 씨는 "대학 커뮤니티의 첫 출발이래는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외부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술력은 최고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공통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독립 운영이다 보니 재정상의 문제가 있고, 소수의 재학생 운영자가 특정한 대가없이 커다란 커뮤니티를 운영하기에는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홍익대 홍익인 운영자 최승우(컴공4) 씨는 "사비로 저렴한 서버를 구입하다보니 수강신청기간이나 시험기간이면 혼란을 겪는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고 대학가 커뮤니티는 많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표출하지 못하는 개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다원화된 대학 사회의 다양한 관심사를 아우를 수 있는 곳으로 자리 잡고 있다. 더불어 같은 대학교라는 소속감을 갖게 해 문목한 동문 네트워크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커뮤니티들이 재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우리학교의 경우, 미미하지만 비슷한 커뮤니티가 존재했다. 지난 2001년 학교차원에서 개교기념일을 기념해 학내소식과 기획기사 위주로 웹진을 구성하고,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생, 졸업생 등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약 3년 전 행정부서간 업무분담 문제와 웹진기사 운영 문제 등으로

사라졌다. 한편 지난해 이비뉴스에서는 대학생 대상 인터넷 신문 '동국대 투유'가 창간되었다. '동국대 투유'는 학내소식뿐만 아니라 취업과 강의 정보, 아르바이트 정보 등 다양한 메트로 구성되었지만 취재와 기사 작성을 전담할 기자의 부족으로 현재는 문을 닫은 상태이다. 우리학교 총학생회에서는 지난 학기 학교 커뮤니티 차원에서 '패란동국' 홈페이지를 오픈 했으나 준비밀호로 현재는 폐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호희(경영4) 총학생회 사무장은 "새로운 총학생회에서는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늘부터 정식 오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곧 우리학교에서도 동국인들에게 의한 동국인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볼 수 있기를 고대한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 seoul 2006 FRINGE 독립예술 바다로 돛을 올렸다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느낄 수 없다. 모두가 대중적인 예술작품을 할 때 자신만의 특색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축제, 프린지페스티벌.

'프린지'란 '주변'이라는 뜻으로 프린지페스티벌은 올해로 9회를 맞았다. 올해에는 △고성방가=음악축제 △내부공사=미술전시축제 △이구동성=무대예술제 △중구난방=거리예술제로 꾸러졌다.

올해 프린지페스티벌에서 부각된 것은 작가와 관객사이의 소통이다. 숲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 '벌의 공격'은 작가의 위트 있는 주제가 돋보였다. 관객들은 벌이 있는 위치를 담은 지도를 이용해 벌을 찾아 나서고 그것을 사진으로 남겨 전시장에 붙임으로써 작품에 참여하게 된다. 인디스트인 윤민화(특성어대3) 양은 "대부분의 작품들이 작가가 만든 것을 관객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작품은 관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작가와 관객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무료공연의 원칙은 관객들을

불러 모으는 프린지페스티벌의 가장 큰 전략이다. 갤러리 꽃 관람객 손이슬(사회과학부1) 양은 "좋은 작품들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무료공연은 관객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며 흡족해 했다.

하지만 독립예술축제라는 이름 아래에 치러진 이번 프린지페스티벌에 몇 가지 아쉬운 점 또한 없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홍보부스가 팽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장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 눈에 띄는 현수막이나 홍보포스터가 부족해서 동떨어져 있거나 간판이 협소한 장소의 경우 관객들이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말 독립예술제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는 이도 있었다. 선발할 때 비주류 예술가들보다는 조금은 이름이 알려진 예술가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인기공연이 아닌 공연들은 관람객의 수가 저조하다. 인디스트 윤씨는 "페스티벌 문화가 기존의 문화와 동떨어진 감이 없지 않다"며 실현적인 예술을 많이 접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공연은 쌍방 간의 소통이 가능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배가 된다. 이번 프린지페스티벌을 통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작가들이 양지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고 관객들도 그들의 작품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윤) yijoonjae@dongguk.edu



## 문학예술인 그리고 동국

소설가 박진규(문창02졸)



늘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황당무계하면서도 그 속에 현실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 '발칙한 상상력을 가진 소설가'라는 수식어가 꽤나 잘 어울리는 박진규(문창 02졸) 동문을 만났다. 그는 글을 쓰고 이야기 만드는 것을 좋아해 지금의 문예창작

## 독특한 발상을 소설속에 녹여내

학과와 국어국문학과와 모태인 한국어문학부에 지원을 했고 소설가의 길을 택했다.

지난해 '수상한 식모들'로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한 박 동문은 역대 최연소 수상으로 주목받는 신인이다. 이에 그는 "연련 있고 작품 활동도 많이 하신 선배님들이 받은 상이라 더욱 기쁘고 특별하게 느껴졌다"며 "좋은 소설을 써야 한다는 부담감도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누구나 그렇듯 새로운 자리에 처음부터 익숙한 사람은 없다. 그 역시 아직은 '소설가 박진규'라는 말이 어색하다고 수줍은 듯 말하며 소설가에게는 문장력과 이야기 구성력 외에도 자신만의 세계관이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평소에도 문학서적

을 통해 자신만의 사고를 가지고 사물을 보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또한 모든 후배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고 자신만의 도서목록과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제 막 소설계에 등단한 박 동문은 규정 지어준 삶, 절대적이라 생각해서 새롭게 생각하기를 꺼려하는 것들에 대해 아이러니하고 유머스럽게 다루며 새로운 생각을 담아내는 소설을 쓰고 싶다고 한다.

늘 배워가는 기분으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좋은 작품을 쓸 것이라는 그의 말에서 농익었지만 신선함이 묻어나는 작품들을 기대해 본다.

(최) lminsonaral@dongguk.edu

## 메아리

### 장미빛 미래

소유한 작은 섬 근처에서 젊음을 돌려주는 '청춘의 샘물'을 발견했음을 주장했다.

그는 청춘의 샘물에 대해 "이 물에 닿으면 낙엽도 새 생명을 얻고 죽어가는 곤충들도 되살아나 날아간다"며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말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201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2030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9천달러

에 육박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중장기 비전보고서 '비전2030'을 내놓았다.

정부는 '비전2030'의 실행 결과로 △국민연금개혁완료 △근로장려세제 전 체계구의 21.2%까지 확대 △육아비용 부담 부담률 37%로 축소 △통일 인프라 재정 지난해 GDP의 1.0%로 확대 등 국가성장장의 밝은 미래들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받아들이는 전문가들은 국가 장기 전략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문제는 장미빛 미래를 실현하기 위

해 필요한 1,100조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는 재원조달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비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세금을 1인당 33만원 씩 더 거둬야 한다고 전망한다.

우리나라의 향후 5년간 예상 성장률은 5%인데 1인당 조세부담률은 10%늘어나게 돼 서민의 부담이 커져 말 그대로 '장미빛 청사진'에 불과한 가능성 없는 비전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재원조달방법 결정은 가장 어려운 사안"이라는 말로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발견했다는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청춘의 샘물'은 과연 실존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그 소문으로 관광객을 현혹시켜 돈을 벌려는 술수가 아니냐고 보고 있다. 정부의 희망적 비전 제시는 비단 이번만의 일은 아니다.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시기에도 임기를 얼마 안남기

고 희망적 비전을 제시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이번에도 현재 임기를 1년여 남긴 노무현정부의 민심을 돌리기 위한 야심만이 가득한 장미빛 미래 제시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

정부는 진정한 민심회복은 무리한 정책제시가 아닌 구성원의 공감을 이끈 제대로 된 정책 실행에서 오는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지혜 편집장  
iamjh713@dongguk.edu

## 동국대학교 건학100주년기념 타임캡슐 소장품 공모

건학 100주년을 기념하는 '타임캡슐'에 동국 가족의 추억이 담긴 '사랑의 메시지' 및 단체 활동 내용을 후대에 남기려고 합니다. 또한 '다이어리' 및 기타 소장품을 공모하여 후대에 소장품을 남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타임캡슐 봉인 일자 : 2006. 10. 10 예정(봉인 장소 : 추후 안내)
- 타임캡슐 개봉 일자 : 2106. 5. 8(건학 200주년 개교기념일)

### 1. '사랑의 메시지' 공모

- 가. 작성 대상 : 교수, 직원, 학생
- 나. 공모 기간 : 2006. 8. 23(수)~9. 12(화)
- 다. 수거할 위치 : 각 대학원(대학)행정지원실, 건학100주년기념사업팀
- 라. 메시지 대상 : 자유롭게 결정(100년 후의 자손, 후배 등)
- 마. 제출 크기 : 사진 기준 4 x 6 (10x15cm) 이내
- 바. 제출 형태 : 개별적으로 정한 사진, 엽서, 카드 등의 뒷면에 남기고 싶은 내용을 작성하여 수거함에 직접 투입(다양한 형태 및 그림, 글씨 가능)
- 사. 작성 도자 : 일크 또는 먹물로 쓴 자필 내용(불편, 물감 사용 가능)
- 아. 필수 기재 사항
  - 작성자 : 소속(대학, 학과, 부서), 성명, 학번(교직원번호), 연락처
  - 자. 소장품 '사랑의메시지' 선정 : 타임캡슐 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 차. 유의 사항
    - 1인 1매로 제한하며 규격을 초과하거나 무성인한 내용은 타임캡슐 소장품으로 제외 하오니 양해바랍니다(탈락된 사랑의 메시지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2. '단체 활동내용' CD 공모

- 가. 작성 대상 : 학과, 동아리, 학생회, 교수회, 노동조합, 동창회
- 나. 공모 기간 : 2006. 8. 23(수)~9. 12(화)
- 다. 접수 장소 : 각 대학원(대학)행정지원실, 건학100주년기념사업팀
- 라. 제출 형태 및 수량 : 단체별 CD 1장
- 마. 제출 내용 : 각 단체의 활동 내용 및 기록을 CD에 담아 기간내에 제출바람
- (곡, 말, 음향, 사진, 영상, 문서 등 모든 내용 수록 가능)
- 바. 타임캡슐 소장품 CD 선정 : 타임캡슐 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 사. 필수 기재 사항
  - 기재 내용 : 제출한 단체명, 대표 성명, 연락처
  - 기재 위치 : CD 앞면 및 케이스 뒷면에 작성 (지워지지 않는 필기 사용)

- 아. 참고 사항
  - 타임캡슐 크기가 한정되어 타임캡슐 소장품 CD를 선별하거나 합본 CD로 소장할 예정이오니 이해바랍니다.(탈락된 경우 반환 불가)

### 3. '개인 다이어리' 공모

- 가. 제출 대상 : 교수, 직원, 학생
- 나. 공모 기간 : 2006. 8. 23(수)~9. 12(화)
- 다. 접수 장소 : 각 대학원(대학)행정지원실, 건학100주년기념사업팀
- 라. 제출 수량 : 개인일 1권
- 마. 제출 내용 : 사용한 다이어리를 제출바람(작성한 관계없음)
- 바. 소장품 다이어리 선정 : 타임캡슐 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탈락시 반환하지 않음)

### 사. 필수 기재 사항

- 다이어리 사용자 : 소속(대학, 학과, 부서), 성명, 학번(교직원 번호), 연락처
- 기재 위치 : 다이어리 앞표지 다음페이지에 작성바람

### 4. '리포트, 단문지, 출석부' 공모

- 가. 제출 대상 : 교수 및 강사(2006학년도 1학기 강좌담당자)
- 나. 공모 기간 : 2006. 8. 23(수)~9. 12(화)
- 다. 접수 장소 : 각 대학원(대학)행정지원실
- 라. 제출 내용

제출종류	제출수량	제출 내용
리포트	1	과제물로 제출한 리포트 중 우수한 내용 제출
단문지	1	중간, 기말고사에 작성 및 제출된 단문지 제출
출석부	1	출결 표시가 되어있는 출석부 제출

- 마. 선정 결과 : 타임캡슐 위원회에서 추후 결정(총액별 1점 결정)
- 바. 참고 사항 : 탈락된 공모품은 반환이 불가합니다.

## 건학100주년기념사업본부

☎ 02-2260-3120, 3122  
- 숭아라 새동국 새백년 -

## 2006년 9월 기업체 채용상담 및 채용설명회 일정안내

4월(목)	5월(목)	6월(수)	7월(목)	8월(금)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8:00 교무지원실 (본관 4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8:00 교무지원실 (본관 4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교무지원실(본관 4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본관 2층)
상용화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교무지원실 (본관 4층)	상용화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교무지원실 (본관 4층)	상용화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교무지원실 (본관 4층)	상용화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상용화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다양관세미나실
상용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교무지원실 (본관 4층)	상용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교무지원실 (본관 4층)	상용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교무지원실 (본관 4층)	상용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상용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인성카드 (재용상담 및 D배부) 10:00-17:00 취업상담실 (본관 2층)	